

## 존재했었다. 존재한다. 존재할 것이다.

### 신기운 (Shin Kiwoun)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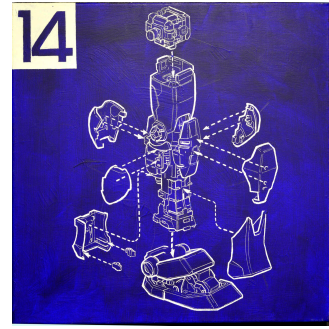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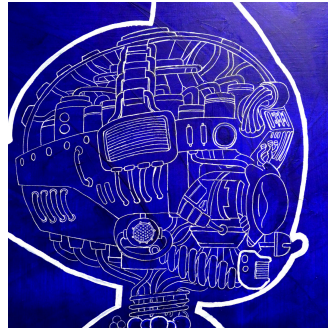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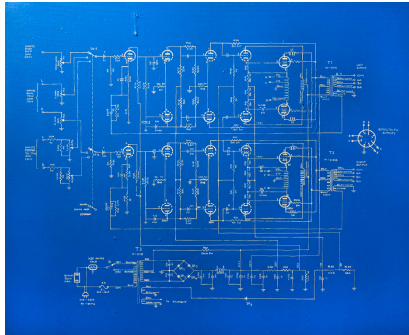
제목: 존재했었다. 존재한다. 존재할 것이다- 신기운 개인전

일시: 2018 년 8 월 7 일 - 8 월 22 일

작가와와의 대화: 2018 년 8 월 18 일 토요일 오후 3 시

장소: 스페이스바(세운 메이커스 큐브 서 201)

기획: 10AAA | 주최: 스페이스바 | 후원: 영남대학교



좌) 신기운, 존재했었다. 존재한다. 존재할 것이다.-매킨토시 275 파워앰프 회로도, 가변적 설치, 캔버스에 채색과 화이트펜, 2018  
중) 신기운, 존재했었다. 존재한다. 존재할 것이다.-아톰 도면 정면 부분, 가변적 설치, 캔버스에 채색과 화이트펜, 2018  
우) 신기운, 존재했었다. 존재한다. 존재할 것이다.-컨단 RX 78 반다이 키트 조립설명서 가변적 설치, 캔버스에 채색과 화이트펜, 2012

세운상가 메이커스 큐브 2 층<스페이스바>에서는 영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프로젝트 그룹 10AAA 와 함께 '세운, 예술가의 실험실 part 6'으로 <존재했었다. 존재한다. 존재할 것이다 신기운 개인전>을 8 월 22 일까지 전시 한다. 기존에 비디오 작업과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작업을 해왔던 신기운 작가의 아이디어 바탕을 이루었던 대상들의 설계도와 도면을 캔버스에 펜으로 드로잉한 회화적 설계도로 <스페이스바> 공간을 구성하였다.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거나. 존재 가능성이 있었던 기기들의 설명서, 아톰 애니메이션의 설계도, 진공관 램프의 설계도의 드로잉등을 통해 '사물의 존재'의 시간성과 그 '존재의 진실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한다. 신기운은 그동안 작품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미지들의 '실재함', '실재 가능성'을 그리고 앞으로 '실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물들을 선택하였다. '세운 예술가의 실험실'을 통해 기존에 비디오 작업을 주로 진행하였던 전작과 달리 최근에는 3D 프린팅 오브제에 책을 같은 가루를 덮어 씌우기도 하고 이번에는 캔버스에 마치 실제 존재했을 것 같거나, 실재하기를 바라는 대상의 설계도나, 실제로 존재하여서 사용했던 전기 화도로 캔버스 위에 설계도 종이처럼 채색을 입히고 화이트 펜으로 드로잉을 하였다. 매킨토시 275 앰프, 호이텐 ho229 비행기, 아톰 등은 예전에 작가의 유년 시절 기억에서 가장 멋지게 기억되거나 존재하지 않은 상상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의 대상으로 이제는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가치를 잃어 잊혀진 대상을 설계도 드로잉 형식의 평면으로 제작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신기운 작가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런던대학교 골드스 미스 컬리지에서 MFA 를 마쳤다. 2007 년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래 2010 년 영국의 블룸버그 뉴 컨템포러리 미술상, 2012 년 SIA Media Artist Award 를 수상하였다. 주로 시간, 현실, 존재, 일루전, 사라짐 이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해 왔다. 작품의 출발은 비디오에서 물체를 가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 작가는 액체의 증발로 발전시킨 후 슬로우 모션 비디오 작품으로 관심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최근 노르웨이의 라데몬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최근 2017 년 <세상은 회색이다.>, 윌링앤딜링과 2012 년 싱가포르 아트센터 에스플라나드

<이동/정지된-이동> 개인전을 포함하여 <The Thermocline of Art - New Asian Waves> ZKM 등 다수의 국내외 전을 가졌다. 현재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트랜스아트 전공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세운상가의 '스페이스바'의 운영작가로 참여하고 있다

**스페이스바**는 현대미술작가와 그리고 기획자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이며, 세운상가에 위치한 SpaceBA를 운영하고 있다. 예술가의 삶과 작업공간의 고민에서 출발하였으며 다양한 국제교류프로젝트와 도시와 사람, 시간과 공간, 그리고 기술과 노동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협업한다. 공간이 위치한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예술인들의 활동을 위한 다양한 예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운상가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 <다시, 세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2016년 영국 Stroud Valleys of Artspace(SVA)와도 교류를 맺어 국제교류의 장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7년 부터는 세운상가 6층에 작가들의 창작공간 'Studios 661'을 오픈하였다. 2017년 6월 부터는 세운상가 2층 메이커스 큐브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www.facebook.com/sewoonspaceba](http://www.facebook.com/sewoonspaceba) | [www.spaceba.org](http://www.spaceba.org)

**10AAA**는 유럽과 한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예술을 사랑하고 즐기는 이들의 모임으로서 역량 있는 예술인(Creative Person; 이론가, 기획자, 작가, 번역가, 과학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기획 하고 실현하는 데 설립의 목적이 있다. 예술 분야뿐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교류의 장을 마련, 창조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보다 풍요롭게 하는 데 문화적 다리(cultural bridge)로서 그 역할을 하고자 한다. [www.facebook.com/10aaa](http://www.facebook.com/10aaa) | [www.10aaa.co.uk](http://www.10aaa.co.uk)

SpaceBA | Studios 661|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16 세운상가 가동 메이커스 큐브 2층 서 201/6 층 661 | [www.spaceba.org](http://www.spaceba.org) | [info@spaceba.org](mailto:info@spaceba.org)